즉시 배포용: 2/9/2016 주지사 **ANDREW M. CUOMO**

CUOMO 주지사, 고용주를 위한 실업보험 기여율의 추가 절약 발표

기여 축소로 고용주는 직원당 40여 달러 절약

실업보험 신탁 기금이 6년만에 처음으로 2015년을 흑자로 장식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그가 2013년에 주창한 실업보험 개혁으로 뉴욕주 고용주의 주 실업보험 기여면에서 추가 절약을 시현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고용주들은 연방 채무의 조기 상환을 통한 각각의 절약으로 이미 약 2억 달러, 평균적으로 약 총 1200달러, 즉 직원당 84달러를 절약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업보험 분담율 명세표가 하향 조정되어, 비용을 더욱 줄이고 고용주들에게 직원당 최대 추가 42.8 달러를 절약시켜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며 고용주 분담금으로 충당되는 뉴욕주 실업보험 신탁 기금이 6년만에 처음으로 작년을 흑자로 마감하였습니다.

"뉴욕주에서 사업하는 비용을 줄이려는 우리의 노력이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는데 있어서 배당금을 내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2013년에 시작한 실업보험 개혁과 기록적인 일자리 성장 및 정부 지출 통제가 맞물려 기업에 전년 대비 절약을 시현하였습니다. 이제, 뉴욕주 기업은 이러한 절약액을 그들의 조업과 직원들에게 재투자하여 우리 경제를 더욱 튼튼하게 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고용주가 납부하는 실업보험 분담금은 이 제도에서 각자의 개별 경험에 의해 그리고 실업보험 신탁 기금 보유액 수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지난 5년에 걸쳐 뉴욕주 고용주들은 실업보험 신탁 기금의 적자와 불경기의 높은 실업률로 인해 더 높은 분담금을 납부하였습니다. Cuomo 지사의 개혁으로 신탁 기금이 더욱 지속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최근 년도에 이 제도를 꾸준히 이용한 고용주들에게는 더 낮은 율이 지정될 것입니다.

주지사의 실업보험 개혁은 또한 실업보험 사기를 퇴치하기 위한 새로운 사기 탐지의 구현과 예방 조치도 시현하였습니다. 이는 신탁 기금의 건전성을 보호하고 구 직원이 취업 상실의 책임이 있을 때 고용주들이 그 직원의 청구에 대해 부담하지 않도록 합니다.

뉴욕주 노동부 장관 대행 Roberta Reardo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Cuomo 지사의 2013 개혁 어젠다에 규정된 개혁이 달성되도록 하기 위해 뉴욕주 전역의

기업들과 계속 협력할 것입니다. 노동부는 기업을 고객으로 생각하며, 우리는 우리 고객의 니즈가 충족되도록 하고 뉴욕주의 기록적 일자리 성장이 지속되도록 함으로써 그들을 행복하게 유지하기 원합니다."

2013년 3월에 Cuomo 지사는 주요 개혁 법안에 서명하여, 근로자를 위해서는 혜택을 늘리고 고용주의 비용을 낮추어 실업보험 제도를 지속 가능하고 자가 수정되게 함으로써 제도를 현대화하였습니다. 개혁 법률에는 연방 융자를 스케줄보다 3년 앞당겨 상환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포함되어 오늘의 비용 저감을 실현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연방 정부로부터 차입하는 위험이 이제 낮아졌고 고용주 납부금이 년도별로 추가되는 구제도 하에서보다 더욱 예측 가능해질 것입니다.

지난 몇 년의 경제 상황 개선도 연방 실업보험 신탁 기금 융자금의 조기 상환에 기여하였습니다. Cuomo 지사가 2011년에 취임하였을 때 뉴욕주 실업율은 8.3%였습니다. 오늘날, 주의 실업율은 4.8%로서 2007년 11월 이래 최저 수준이며 2010년 12월 이래 주의 10개 지역 각각의 실업률은 3% 포인트 이상 낮아졌습니다. 뉴욕주의 경제는 770,000개의 민간 부문 일자리를 추가하였고 지난 60개월 중 52개월에서 고용 성장을 경험하였습니다. 2015년 12월에 주의 민간 부문 일자리 수는 사상 최고인 780만 이상이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